

드론축구, 포지션 · 페널티킥 신설

새 경기 규정, 오는 25일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 협회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부터 적용

전주시가 드론축구 경기 규정에 선수 포지션과 페널티킥을 신설하는 등 더욱 박진감 넘치는 레저스포츠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중주도시로서 전국 드론축구협회 지부장들과의 드론축구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경기 방식과 규정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달라진 드론축구 경기규정은 오는 25일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2017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의 협회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부터 적용된다.

새로 도입되는 드론축구 경기규정은 기존 모든 드론축구공이 골대를 통과하면 득점하는 방식에서 박진감과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골잡이와 골막이 등 팀 내 포지션을 정하고 골잡이만 득점할 수 있게 바꾼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공인구 이외의 개조된 드론볼

사용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페널티킥을 부여해 페어 플레이를 유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선수 모집 및 대회 참가자격을 대한드론축구협회 산하 지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설된 경기규정이 처음 선보이는 '2017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은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사)캠빅종합기술원이 공동주관하고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단순한 드론축구대회를 넘어 드론 기반 레저스포츠 산업의 진면목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축제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의 메인이벤트인 '협회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는 드론축구 저변확대와 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 규모 공식대회로, 전주시 드론축구단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32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조 추첨을 통해 대회 대진표가 확정

된 상태로, 참가 팀들은 저마다 전략과 전술을 다시 가다듬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대회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드론축구 페스티벌에서는 공중에서 장애물을 피해 마치 벌처럼 재빠르게 비행하여 경주하는 드론 장애물 대회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드론을 제어하고 날리는 드론 코딩대회도 진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드론축구 관련 기업들이 선보이는 레저스포츠용, 소방용, 교육용 등 다양한 기종의 드론제품들을 전시·홍보하는 부스도 마련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드론축구의 활약 무대를 넓히기 위한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또, 문제부 허가를 앞둔 대한드론축구협회 공식 설립과 2020년 경 개최를 모색 중인 드론축구 세계 월드컵 대회 개최에 청신호가 켜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드론축구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주시의 드론 경쟁력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며 "동아시아 드론축구대회 개최와 2020년 이후 세계월드컵 대회 개최 등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드론축구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의 드론축구대회와 드론 장애물 레이싱, 드론 코딩대회의 입상자들에게는 총상금 2,200만원과 대한드론축구협회장상과 전주대학교총장상, 전주시의회 의장상, 전라북도 교육감상 등이 각각 수여되며, 그간 드론축구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공로패와 베스트 퍼포머상, 베스트 드레스상 등 특별상도 준비돼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는 '제3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의 대상(꽃심상) 1명 외 42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대상 종합경기장 건립과정 앨범집

준공식 테이프커팅 기념 가위 '최우수상'

54년 전인 1963년 전주종합경기장 건립과정의 모습을 담은 사진 기록물이 '제3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제3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접수된 320여점의 시민 소장 기록물에 대한 전주시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꽃심상) 1명 외 42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종합경기장의 기록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은 지난 1963년 전주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해 전주천의 모래와 자갈 등 골재 토취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한 앨범집(사진136장)을 응모한 임양원 씨가 선정됐다. 특히 이 앨범집에는 효산 이광열 선생이 종합운동장 상량문을 쓰는 뜻깊은 사진이 포함돼 있다.

대상을 수상한 임양원 씨는 "당시 열악한 재정과 제44회 전국체전 개막일까지 공기(工期)에 쫓겨 격무에 시달린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과거 종합경기장을 활용한 사진들이 현재의 소중한 기록물로 평가되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우수상은 제61회 전국체전

준비사업 준공식 기념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위해 제작된 기념 가위(1980.10.2. 전주시 각인)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으로는 1979년 10월 19일 전주종합경기장 기공식 팸플릿과 제44회 전국체전 당시 경기기록요원으로 활동하며 찍은 사진 등 5점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종합경기장 부분과 함께 전주에 관한 일반 민간기록물 공모도 진행됐다. 일반 기록물 중에서는 전주부 인리 파임기 초(全州府 人里 把任期抄)에 관한 1850년대(추정) 문서로 전주부 관리나 하인의 임무를 기록해 놓은 고문서를 응모한 송복식 씨가 특별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금암동 마을에서 공동소유하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혼례복 일체와 보관 상자, 전주이씨 족보(14권), 1913년 토지대장 등 시대의 기록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들이 전주의 기억으로 남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 기억하는 시민들의 삶과 전주 정신의 원형을 찾아 이어갈 인문학적 자산으로 전주 경기장을 활용한 사진들이 현재의 소중한 기록물로 평가되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독거노인 보호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주시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생활관리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센터장 서양열)는 20일과 21일 1박2일 동안 진안 데미샵 자연휴양림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만족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거노인 보호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들의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고 업무 스

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체험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이어, 2018년 독거노인 보호사업의 방향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등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김승수 시장도 이날 워크숍이 진행되는 진안 데미샵 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생활관리사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전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어르신들의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 이틀째인 21일에는 직원 한 마음체육대회와 인권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18일 '성평등문화,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레이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함께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성평등 문화 조성과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18일 '성평등문화,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레이트'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함께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성평등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알리고,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가오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가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심기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성문화는 우리 모두가 바르게 알고 함께하였을 때 이루어짐을 믿기에 많은 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 돌며 상습차량털이 한 형제 구속

전주에서 빛을 갠기 위해 상습적으로 차량을 털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형 A(21)씨와 동생 B(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9월 2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C(37)씨의 차량에서 현금 700만원을 훔치는 등 9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주 완산구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1.60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동생이 빛을 저이를 갠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동종전과에 대한 누락기간에 있었던 점을 들어 구속하고 이들의 여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이상민 기자

완산경찰, 112타격대 재난 대비 출동태세 점검

완산경찰서는 최근 경북 포항에 발생한 잇따른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112 타격대 출동 태세 점검 및 인명대피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갑자기 재해나 재난 현장 출동 시 폴리스라인 설치 및 부상자 구호 등 112타격대 본연의 임무를 숙지시키고자 한 것으로 실천처럼 반복·숙달 위해 진행됐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